

I nternational S ecretarial S tudies P rofessionals

국제비서학과 뉴스레터

목차

Page 1

- 국제비서인의 날 특집기사 1 - 축제의 꽃 '레드카펫'

Page 2

- 국제비서인의 날 특집기사 2 - 졸업선배들의 취업이야기
- 상경대와 함께 하는 체육대회
- 동아리 소개

Page 3

- 캐나다 횡단 나는 다녀왔다
- 외성 해외 문화 체험단 도전기
- 첫인상, 패션으로부터!

Page 4

- 가로세로 퍼즐
- 과학상식 - 손난로 속에 숨은 비밀은?
- 예비 국비인을 위한 Books & Movies
- 축하코너
- 편집후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55-1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관 3층 320호
Tel : (051)640-3566 Fax : (051)640-3567
Homepage: <http://cms.pufs.ac.kr/diss>



제 4회 국제비서인의 날 -축제의 꽃 '레드카펫' -

지난, 11월 13일은 '제 4회 국제비서인의 날'로 국제비서학과 인들만의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국제비서학과 재학생들과 졸업선배님들이 참가 하였으며 교수님들도 오셔서 이 행사를 더욱 빛내주셨다. 오늘의 행사는 아리따운 국비 FC 축구경기로 시작해 레드카펫 입장, 저녁식사와 케이크 커팅식, 피자파티, 이날의 베스트 드레서 선정, 마지막으로 졸업선배의 초청 강연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천으로 인해 아리따운 국비 FC 축구 대회는 하지 못했지만 이날 행사는 훌륭하게 잘 마무리 되었다.

축제의 만큼 이날의 화제는 당연 드레스코드와 레드 카펫에 있었을 것이다. 이날의 드레스 코드는 4학년은 블랙, 3학년은 레드, 2학년은 퍼플, 1학년은 핑크, 남학생들은 블랙&레드로 다양한 스타일과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수님들도 드레스코드에 맞춰 입고 오셔서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고 단합될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의 강렬한 레드가 돋보였는데, 3학년 학생들의 정성과 땀으로 열린 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처음 레드카펫으로 입장해 친구들과 멋진 사진을 찍는 행사는 독특하면서도 색다른 이벤트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녁식사와 케이크 커팅 식, 피자 파티로 행사는 점점 무르익어 다.

이제 자리를 옮겨서 드디어 대망의 베스트 드레서를 발표했다. 4학년은 양주혜 양으로 드레스 코드인 블랙을 잘 맞춰 입고와 모두의 이목을 받았다. 3학년은 학생장인 고인지 양으로 빨간색 카디건이 마치 백설 공주가 튀어 나온 듯했다. 2학년은 석효진 양과 이선재 양이 매력적인 퍼플룩으로 베스트 드레서가 되었고 1학년은 이슬이 양이 화사한 핑크색 원피스로 베스트 드레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자부문에서는 양승준 군이 블랙&레드 의상으로 베스트 드레서가 되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이어서 교수님들의 말씀이 이어졌다. 정희자 교수님께서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잘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다." 하시며 "해마다 발전해 나가는 국제비서학과 학생들을 보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씀 하셨다. 두 번째로 김미영 교수님께서서는 빨간색 코트를 입고와 마치 소녀 같으셨다. "행사가 거듭될수록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기 좋으며 아름다운 밤 즐기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류영태 교수님은 멋진 보라색티를 입고 오셔서 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셨으며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예쁜 모습 보기 좋다. 얼마 되지 않은 신생과 이지만 취업을 잘 해나가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자신감을 기르도록 해라."며 국제비서학과 학생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마지막으로 송현정 교수님께서서는 읽으셨던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이 된다. 항상 발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국제비서학과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 고 당부하셨다.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의 강연이 이어 졌으며 뜨거운 열기의 국제비서학과 축제는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3학년들이 직접 기획해 행사장도 꾸미고 서빙도 해서 많이 고생했다. 또한 학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후배들도 더욱 국제비서학과를 아끼고 잘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포부를 가져 본다.

09 김윤성 기자



제 4회 국제비서인의 날 -졸업 선배들의 취업이야기-



▲ 강은지, 이주연, 김소희 선배(왼쪽부터)

긴장을 늦추지 마라! 예지력은 완벽한 비서로 만든다. 이주연 선배 [넥센 타이어 대표이사 비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미흡한 점이 아직 많이 있어 후배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요. 비서라는 직업은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은 꼼꼼함과 정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약이나 확인 등을 실수 없이 해야 하고, 상사는 모두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시켰을 때는 혼자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사마다 기호나 업무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상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놓고,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둘 수 있는 비서가 완벽한 비서라고 생각합니다. 비서는 주말에도 항상 연락이 올 것을 대비해 전화기를 옆에 두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는 비서의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회사 내 모든 사람들이 누가 비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정하고 깔끔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의 도전은 기본부터!

김소희 선배 [경동도시가스 본사 대표이사 비서]

고리타분할지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력서 등 면접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이때까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글로 표현해야 하고, 또 남들과 차별을 뒀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면접 때 위 서류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와 관련된 것들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력서 양식 순서로 그대로 적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성장배경이면 그것에 대한 소재목을 달아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은 구체적이며 에피소드, 경험 등을 토대로 면접관이 자신의 열망과 노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 면접 예상 질문을 적어 놓고 그에 대한 답변들을 하루에 하나씩 늘려가면서 연습을 하면 면접 때 떨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미영 교수님 수업 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친구들과 면접 스테디에 참여해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볼 때는 면접관의 눈싸움입니다. 자신을 쳐다본다고 해서 기 죽지 말고,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얘기하면서 모든 면접관들을 골고루 바라보면서 아이컨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서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비서학과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피해도 정확하게!

강은지 선배 [STX엔진 사장 비서]

일을 시작한지는 1년 6개월이 되었지만, 조금 여유로워졌다는 점 빼고는 아직 일이 능숙하거나 프로 같지는 않습니다. 입사 초기 때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당황하여 반복해서 물어보고, 상사가 지시하신 내용도 제대로 몰라 다시 물어봤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지만 상사가 전화로 기밀 사항을 전달해야 할 때 내가 잘 못 듣고 다른 사람에게 연결했을 경우에는 큰 실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들었을 경우에는 재확인해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서의 출퇴근은 상사에 따라 다른데 종종 회의가 길어지거나 상사가 퇴근을 하지 않을 때는 같이 퇴근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비서 준비를 하는데 학과 수업,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수님께서 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과행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노력한다면 모두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07이다정, 08이은수 기자



상경대와 함께 하는 체육대회

지난 10월 9일(금) 상경대의 주최로 부산외대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날만큼은 학생들이 공부에서 벗어나 체육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해결하고, 다른 학과와의 여러 가지 시합을 통해 학과의 단합과 다른 학과 학우와의 만남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열린 대회였다.

아침 일찍 부터는 수업을 안 한다는 마음 때문인가? 마음이 들뜬 학생들로 운동장은 붐비었다. 10시부터 개회사를 시작으로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지루한 개회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경기가 치뤄졌다.

첫 번째로는 족구 예선 및 피구 예선이 시작했다. 국제비서학과의 특성상 남자학우가 소수라는 점에서 족구 경기에서는 별 기대 하지 않았다. 역시나, 좋은 결과는 없었다. 하지만, 일학년 남성학우들의 끈기를 볼 수 있었다. 반대로 피구에서는 일명 “통기”라 불리는 학우들이 많아 좋은 기대를 했건만, 모두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그렇게 우리는 족구와 피구에서는 예선탈락을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점심을 먹었다. 아쉽다고 이 좋은 날 기죽어 있을 국제비서학과가 아니었다. 막걸리와 사이다의 환상적인 조합 덕분인지 국제비서학과의 응원은 열광적이었다.



점심을 먹는 사이에는 상경대 축구 FA컵 결승전이 열렸었고, 축구가 끝나고 족구와 피구 결승전이 열렸지만 우리는 참가하지 못한 채, 응원석에서 응원만 할 수 밖에 없었다. 족구와 피구 결승전이 끝나고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 3시부터는 여자 팔씨름 대회와 줄다리가 열렸다. 여자 팔씨름에서는 한 명의 싸움꾼이 있었다. 부경란 학우의 엄청난 힘의 승리로 2등이나마 차지 할 수 있었고, 줄다리기에서는 국제비서학과의 단합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다. 보기 좋게 우리는 1위를 하였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계주는 불꽃 튀는 경기였다. 비록 국제비서학과는 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정말 모든 학과들의 땀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었다. 이렇게 국제비서학과는 전체에서 응원상을 받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 날 열린 체육대회는 서로의 친목과 학과 간의 단합, 체육대회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뜻 깊은 날이었고, 무엇보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치게 되어 상경대의 스포츠맨십을 볼 수 있었다.

07 황준호 기자

국제비서학과 ‘영어회화 동아리(SURPRISE)’ 를 소개합니다!

- 동아리를 만든 취지는 무엇입니까?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어휘 및 표현을 공부하여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도록 하기 위한 동아리입니다. 친숙하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이 회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무엇을 학습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모여 수업을 하고 일상생활 영어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회화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업은 당일의 학습범위에 해당하는 회화를 들은 뒤 받아쓰기, 회화를 다시 한 번 듣고 따라 읽기, 모르는 단어와 문법을 공부하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 동아리 활동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영어를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이 동아리를 통해 영어 회화에 자신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때까지 꾸준히 학습을 한다면 별도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후배가 함께 학습을 함으로써 상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회화에 자신감이 없고 즐겁게 영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어회화 동아리를 잘 모르는 재학생들에게 한 마디.

영어회화 동아리는 주 1회 1시간 학습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선·후배가 함께 학습을 함으로써 상호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자신감이 없고 즐겁게 영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9 장수지, 09 김윤성 기자

캐나다 횡단! 나는 다녀왔다.



캐나다의 전 세계 국가 중 러시아에 이어 국토 면적이 두 번째로 크다.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돼 있으며, 영어권 국가로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떠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캐나다에서 영어공부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경험과 '캐나다'라는 광활한 대지를 몸소 느끼고 온 이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국제비서학과 05학번 김현진 양이다. 캐나다

다횡단을 하고 온 김현진 양을 인터뷰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었다.

Q. 캐나다횡단을 하고 오셨는데, 언제 다녀 온 건가요?

2009년 6월~7월, 성수기의 한 달 동안 캐나다횡단을 다녀왔습니다.

Q. 혼자 떠나기는 힘들었을 텐데, 함께 간 사람이 있었나요?

친구와 함께 캐나다 유학을 갔고, 캐나다 횡단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Q. 캐나다의 어느 곳을 다녀오셨나요?

캐나다에는 13개의 주가 있는데요. 3개의 중주와 10개의 준주가 있어요. 그 중 9개의 주를 다녀왔어요.

Q. 캐나다횡단은 왜 하게 되었나요? 계기나 목적이 있었나요?

영어공부를 위해 캐나다를 1년간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서 ESL과정을 8개월 만에 마치고, 4개월의 기간이 남아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캐나다 횡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준비를 하고, 1개월 동안 캐나다 횡단을 하였습니다.

Q. 그렇다면, 여행 준비는 어떻게 하였나요?

기차로 여행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기차표를 구매하고 기차를 통한 구체적인 횡단 경로를 정했어요. 그리고 컨셉을 캠핑으로 하여 그에 맞는 캠핑용품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Q.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려면 금전적 부담이 클 것 같은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총 1인 3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지역마다 이동할 때는 기차를 이용했지만 지역에 도착해서 캠핑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그런 비용과 교통비가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 밖에는 캠핑장 사용비용과 식비가 들었어요.

Q. 여행을 하면 이런 저런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 해 주세요.

캐나다 횡단할 때 친구와 WBC 한국 대표단 모자를 같이 구입해서 쓰고 다녔어요. 모자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기에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알아봐주시고 한국인이냐며 물어보기도 하고 나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된 것 같아요. 또, 한국인 가족들도 만났는데, 타국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굉장히 반가웠답니다. 이것도 외국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인 것 같아요.

Q. '캐나다횡단'이라는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한국에만 있을 때는 우울 안 개구리였어요. 캐나다의 광활한 땅을 밟고 나서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꿈도 더 커지게 되었어요. 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과 개척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기회가 되었어요. 횡단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가다가 죽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혼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해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곳이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한국에서 볼 수 없던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외를 나와서 문득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만 있었다면 이러한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우울 안 개구리로 살았을 테니까요. 다른 학우들도 해외여행 경험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좁게만 생각했던 것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Q. 캐나다로 여행을 떠날 후배들에게 유용한 tip을 전수해 주세요.

캐나다는 캠핑이 유명해요. 여유가 된다면 중고차를 구입하여 캠핑을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고차의 구입비용은 보통 300만원인데요. 사용 후 되팔 수도 있으니까요. 대도시를 투어 한다면 호스텔을 이용하면 되요. 그런데 성수기는 방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예요. 이러한 숙박정보들은 관광안내소(information center)에 가면 모두 알 수 있어요. 기차역 옆이나 고속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관광안내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두면 정말 좋아요. 숙박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이 관광안내소만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면 문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Q. 캐나다횡단을 하고 난 다음의 목표가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시베리아횡단과 중국횡단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외성 해외 문화 체험단'에 합격하여 싱가포르에 다녀오게 될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요즘은 많은 학우들이 휴학을 하고 외국 유학을 다녀오는데요. 외국에 나간다면 언어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공부를 위해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언어능력의 향상뿐 만 아니라 여행을 통한 타 문화의 경험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오면 좋을 것 같네요.

07 이한솔 기자

허수봉 양의 외성 해외 문화 체험단 도전기



Q) 외성 해외 문화 체험단을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김미영 교수님 공통교양(자기개발과 진로탐색)수업 중에 선배님들의 외성 해외 문화 체험단 체험후기를 들었어요. 후기를 들으면서 '나도 2학년 때 한 번 참가해볼까? 영어 잘 해야 되는 건가?' 등 여러 생각을 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2학년 때가 참가하기에 최적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학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고 최종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Q) 외성 해외 문화 체험단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준비하는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중간고사 기간에 1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거였어요. 시험 준비도 해야 했고 1차 서류준비도 해야 하고 두 가지일 모두 저에게는 중요한 일 이기에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어서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팀원들 모두 꼭 가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공강시간에 수업 이후에는 빈 강의실을 빌려 열심히 팀원들과 1차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시험공부를 위해서 짧은 시간 집중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외성 해외 문화 체험단에 최종선발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 때의 기분은 세상 누구보다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발표가 나기 전까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최종선발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생각이 눈 녹듯 녹아 내리면서 한동안 팀원들 모두와 얼싸안고 뛰었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송현정 교수님이 생각났어요.

Q) 외성 해외 문화 체험단에 최종선발 되셨는데 그 나라에 가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우선, 이번에 우리 조의 주제인 케이프타운대학을 탐방해 보고 싶어요. 외성 해외 문화 체험단을 준비하면서 사진으로만 본 그 학교는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무척 궁금해요. 또 케이프타운을 구경하고 싶어요. 그 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보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외성 해외 문화 체험단을 참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 국제비서학과 학생들이 한번쯤은 꼭 참가해보았으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어성적과 평점이 걱정되신다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보내는 공강 시간 조금만 쓰고 주제가 잘 정해진다면 합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선발이 되지 않더라도 준비를 통해 배우는 것도 많고 인맥도 넓어진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국제비서학과 학생들의 의지가 남다르다고 생각되는 데요. 다음 기회에 외성 해외 문화 체험단에 많이 참여해보세요. 제가 열의를 다해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09 김수영 기자

첫인상, 패션으로부터!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첫인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첫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첫인상 즉,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미지란 무엇일까? 이미지는 자신만의 사고, 판단, 취향이 한곳에 모아져 만들어진 그 사람에 대한 고유한 느낌이다. 자기 자신의 본질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되어지는 또 하나의 자신인 것이다. 또 각각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형성되어 존재하는 모습이다. 그러한 뜻을 가진 이미지가 사회생활,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사회경쟁력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회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상 '이미지' 즉,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생각되어 지는가는 사회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여러 가지로 형성되어지는데 그 중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패션이다. 패션이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는 여러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복이다. 예를 들어 의사는 보통 흰 가운으로 대표되는데 이것은 환자에게 신뢰감, 깨끗한 이미지를 준다. 또 군복의 경우는 전투에서의 효율은 둘째 치고 소속감과 통일감, 병사로서의 전투적 이미지이다. 이렇게 제복으로써의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직업에 맞는 이미지와 신뢰를 주며 또한 그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직업에 대한 자각과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는 행동양식을 요구하게 된다.

단순히 이렇게 직업에 따른 옷차림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간인가에 따라서도 패션은 변한다. 면접 때 입고 가는 옷차림, 경조사 때 입고 가는 옷차림 등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패션도 있다. 또 친구들과의 가벼운 만남에 입고 나가는 옷차림과 소개팅에서 입고 가는 옷차림은 확실히 다르다. 이렇듯 직업, 성별, 상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간단한 성격까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패션이 주는 정보는 생각보다 많다.

결론적으로 이미지란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패션은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국제비서인들도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멋지게 가꾸는 것은 어떨까 한다.

09 양승준 기자

재미있는 퍼즐~

1ㄱ			2		3=		4	
		ㄴ						
	5					6ㅁ		
ㄹ								
								9
ㅂ	7						ㅅ	
			8					
	ㅇ							10
ㅈ							ㅊ	

가로

- ㄱ. 서로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함. 남북 서해 ○○.
- ㄴ. 남자와 여자. 또는 남의 남녀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피함.
- ㄷ. 학처럼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몹시 기다림'을

뜻하는 고사성어.

- ㄹ. 대한민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선수로는 최초로 ISU(국제빙상연맹) 주관의 선수권 대회와 그랑프리 시리즈 및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함.
- ㅁ. '네티즌(netizen)'을 순화하여 이르는 순우리말.
- ㅂ. 생감의 뚝은맛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거되어 붉은색으로 말랑말랑하게 무르익은 상태의 감. 연시 또는 연감이라고도 함.
- ㅅ. 세무사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납세 의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상담해주는 사람.
- ㅇ. 법흥왕 18년에 설치된 신라의 중앙 관제의 최고위 관직. 화백회의를 주재하고 의결 사항을 왕에게 아뢰어 재가를 얻어 실행하게 함. 신라 제 27대 임금인 선덕여왕 재위 말기, 비담은 화백회의의 수장인 ○○○이 되었다.
- ㅈ. 힘을 보태어 서로 도움. 국제비서학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를 부탁드립니다.
- ㅊ. 가는 원통형으로 길게 뽑아 일정한 길이로 자른 흰떡.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데일로 지정하였다.

세로

- 1. 대학에서 전문 학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가 있는데 흔히 이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 2.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함. 현실을 ○○○하다.
- 3. 대학의 학부 과정을 마치고 규정된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를 이르는 말.
- 4. 양치식물 고사릿과의 여러해살이풀. 꼭대기가 꼬불꼬불하게 말리고 흰 송 같은 털로 온통 덮여 있음.
- 5. 생일잔치를 가리키는 말. 축 ○○. ○○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6. 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형세라는 뜻으로, 몹시 위태로운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고사성어.누누란지위(累累之危).
- 7. 어떤 일을 하기에 아직 때가 이룸.
- 8.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열등생.
- 9. 군대에서 장교와 병사 사이에 있는 계층의 중간군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계급을 통틀어 이르는 말.
- 10.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

*퍼즐 정답을 적어 12월 18일까지 국제비서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 정답 및 당첨자 발표는 12월 19일 국제비서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해주세요.



손난로 속에 숨은 비밀은?

누구나 겨울이면 한번쯤은 손난로를 써보았을 텐데요. 이 손난로 안에도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원리는 손난로 안에는 금속으로 만든 동전모양의 물체와 액체상태의 화학물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화학물질은 강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전모양의 금속물체를 구부리면 금속물질이 있는 곳부터 탁한 색으로 변해가면서 열을 냅니다. 여기서 이 열은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반응열이란 어떤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하거나 주위에 열을 방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원리로 손난로는 반응열을 이용하여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TIP 손난로를 만드는 방법

준비물: 하이포 용액, 병뚜껑, 두꺼운 비닐봉지, 냄비, 컵, 망치,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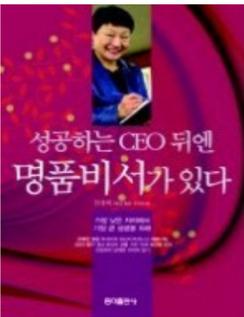
1.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이 뜨거울 무렵 컵에 하이포 용액을 통을 붓고 중탕을 합니다.
2. 하이포가 다 녹게 되면 컵을 꺼내 위를 막아 적당히 식힙니다.
3. 병뚜껑을 망치로 판판하게 편 뒤, 못으로 구멍을 여러 개 낸다.
4. 두꺼운 비닐봉지에 병뚜껑과 하이포 용액을 넣고 윗부분을 새지 않게 봉합합니다.
5. 마지막으로 병뚜껑을 5 - 6회 충격을 가하면 따뜻한 손난로가 완성됩니다.

09 김수영 기자

예비 국민인을 위한 Books & Movies

지난 달 12일, 수학능력고사가 끝났다. 마음속에 자신이 꿈꾸던 희망을 위해 미래를 설계할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수시를 통해 이미 합격하고, 정시를 통해 IS국민이 되고자 하는 예비 국민인을 위한 책과 영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서에 관한 서적들은 요즘 비서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면서 많이 출판되고 있다. 그 중 네이버 지식인의 서재 추천 도서로 선정된 <비서처럼 하라>, 김미영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책 <성공하는 CEO 뒤편 명품비서가 있다>과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꼽아보았다.

Books



요즘 비서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면서 비서에 관한 서적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먼저, 보스처럼 생각하고, 결정하며 보스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비서처럼 하라>는 커피 타고 스케줄 관리하는 사람이 비서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이미지가 오늘 날에는 다르다는 현실을 깨닫도록 돕는 책이다. 왜 '삼성그룹 사장단의 47%가 비서실 출신'인지, 또 그들이 왜 그렇게 인정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두 번째는 30년 동안 대기업 총수의 완벽한 명품비서이자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활동해온 전성희 이사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성공하는 CEO 뒤편 명품비서가 있다>이다. 전성희 이사의 책에는 비서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물론, 외국어 공부의 중요성도 알려준다. 전성희 이사는 37세의 늦은 나이에 대기업 총수의 수석비서로 발탁되었다. 30년 동안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업무를 챙기고 직무상 필요성에 따라 4개 국어(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를 익히는 등 자기계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하는 전성희 이사를 롤 모델(Role model)로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Movies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알고 있는 사람은 꽤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비서가 된다면...'이라고 생각하고 시청한다면 분명 다르게 느낄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상사의 요구와 여자들의 끊임없는 암투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실수만 연발하던 그녀가 상사의 마음을 사는데 성공하고 촌스럽고 뚱뚱한 모습에서 세련된 커리어 우먼으로 변신하는 영화의 내용이 과장되거나 미화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가 시간이 지나면서 준비성 있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수단과 방법들을 보자. 미래에 비서를 꿈꾸는 예비국민인과 현재 비서로 활동하는 이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비서는 상사의 동료, 비즈니스 파트너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큰 책임이 따르는 만큼 멋진 비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비서학과가 되길 바란다.

09 황혜율 기자

+ ☆ 축하 코너 ♥ +

- To. 김효진 - 효진아 비서자격증 딴 거 축하해!
 - To. 이목연 - 얍마 생축해 비엠아 사랑해 커플 머리띠 간직해 평생!!
 - To. 공다은 - 백일 축하해~ 100이라..휴..오래사겠네?ㅋ
 - To. 정민정 - 민정아 사권거 축하해 오래가 ㅋㅋ 미정아 니 남자친구 세상에 서 제일 잘생겼다 정말 나는 님남자친구가 부럽다 휴
 - To. 최연주 - 연주야 생일축하해 선물은 다음 해에 줄게 ㅋㅋ
 - To. 장수지 - 수지야! 생일축하해. 너가 좋아하는 닭 먹으러 가자.수지야 생일 축하하구 닭은 다같이 먹으러가자ㅋㅋ \
 - To. 김윤성 - 윤성아! 생일축하한다ㅋㅋ 생일 기대해 _ sj
 - To. 김다혜 - 우리다혜애기다혜난쟁이똥자루..ㅋㅋ 생일축하해^^
- ♥ 생일 축하해 우린 6년째 아니 이제 7년째 연애중이니파ㅋㅋㅋ 종범이랑 오래가구~~ 20번째 생일 너무 축하해용!! >>까 섹시다혜~♥ 생일 축하하고...키는 다 컸다!!!! 땅콩 3인방 힘내랏!! 우히히히
- 다혜야 생일 축하하고 올해 1살 더 먹은 기념으로 막통가나요+_+ ♥ _ 은동이ㅋㅋ

뉴스레터 동아리 편집후기 송현정 교수님 말씀

뉴스레터 동아리의 모든 부원들이 참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한다는 기쁨과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옛지있는 국민인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국제비서학과와 파발꾼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한 해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들 사랑해요.

이목연(3학년): 창간호가 나온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호 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1대 편집장으로서 ISS PRO가 향후 국제비서학과와 정보의 Hub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애영(3학년):** 올해 마지막 호인데 많이 참여도 못하고 수업 때문에 회의도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커요. 올해 좋은 뉴스레터 많이 만들었으니까 내년에도 좋은 뉴스레터 함께 만들어 봐요♥ **김보람(3학년):** 1년 동안 이끌어왔던 동아리를 벌써 후배들에게 양보할 때가 되었네요 :) 앞으로도 ISS PRO의 발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한솔(3학년):** 우리의 3번째 작품이 나왔어요~ 모두들 수고했어요. 이제 완성된 우리의 작품을 감상해 보시죠!! **박영혜(3학년):** 어느덧 마지막 작업이네요, 모두들 수고하셨구요!^^ 다음엔 더 분발하길 바래요♥ **이다정(2학년):** 이번 년도 마지막 호네요~~어렵고 힘들었지만 1년이 지나가니 뿌듯합니다! 더 나은 다음 호 기대해 주시고 모두 수고했어요~! **황준호(2학년):** 국비 모두가 우리 뉴스레터를 보는 날까지 파이팅 합시다! **이은수(2학년):** 처음 한 편집이었는데 다음 호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지(1학년):** 3호까지 왔네요! 아직까지 실수도 많아 아쉽지만 내년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1학년):** 한 해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좋은 기사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황혜율(1학년):** 2009년 마지막 호!앞으로 더 좋은 기사를 위해 파이팅! **양승준(1학년):** 벌써 3호가 나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글이 되어 더욱 특별한 3호입니다. 군대에 가서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Gracias!